

May 19, 2019

가정의 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419장(통478, 주날개밑 내가 편안히쉬네)

Prayer 기 도 성기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잠언24:1-14

Choir 성가대찬양 "천성길을 버리고"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지혜가 무엇이냐?"

◎Prayer 기 도 다같이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성가대연습 / 교육부편드레이징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왕상2:10-12 ☐ 제목: 다윗이 죽다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 라계용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권사 인도 : 최 활집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2019년 표어 또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3. 2019년 5월 행사계획
5/19 교육부수련회편드레이징
5/26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4. 6월달부터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5. 교육부수련회가 6월24-26일(수)까지 있습니다.

6. 교우동정
- 김창님 권사(LA 작은 딸집)
- 한경완 권사(팜데일 큰 딸집)

7.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5/26 최활집사 6/2 조홍진장로 6/9 김용훈집사 6/16 원동길장로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5/25 김봉재권사 6/1 장정남권사 6/8 최은자권사 6/15 라계용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최 활집사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예배위원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 전 도 사 : 황창원
☐ 시무장로 : 김경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협동장로 : 원동길
☐ 음향간사 : 장정관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기타 : \$
지난주일 합계 : \$	

잠언23:22-25 너를 낳은 부모

2.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22)

22절 하반절입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늙고 잘 못알아 들으시고 하면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차매라도 걸리시면 천덕구러기가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나이들면 외모, 언어, 경제, 범사에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십니까?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지는 자식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미안해 할까봐! 자식 얼굴에 그림자라도 드리워 질까봐!

2016년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 6개월정도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알고계신 차매가 배외차매라고 해서 항상 어딘가를 걸어가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짐을 싸고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주 길을 거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살지? 엄마가 너무 오래살아서 문제야! 누굴 탓하겠니 다 이 애미가 문제다. 세상의 부모님들 그중에서도 어머니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탓을 돌리지 못합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의 몫으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십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도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어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냇두리인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